글로벌 금융, 디지털 금융과 금융안정

김 인 준

글로벌 금융

글로벌 금융의 중요성

- 국내 경제의 저성장 국면 진입과 국내 금융시장 수익률 저하
- 국내 금융시장의 포화 현상과 경쟁 심화
  - 금융기관들의 해외 진출을 통한 신시장 개척 필요
  - 안정적 수익기반 마련의 중요성 증대
- 무역과 해외 직접 투자 규모 확대
- 국제수지 흑자 지속과 민간의 해외 재무적 투자 수요 증가
- 정부와 공공기관의 해외 투자 여력 확대
  - 한국은행의 외화보유고 : 2019년 2월 현재 4046억 달러
  - 한국투자공사의 해외 투자 자금 : 2017년 말 1341억 달러
  - 국민연금(638조 원) 등의 해외 채권, 주식, 대체투자 수요 확대

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과제

- 아세안 등 고성장 국가들과 신시장 금융시장 개척
  - 아세안 10개국은 경제통합과 금융통합 추진
  - 아세안 진출의 경우 상호호혜적이고 동반적인 관계를 중시
- 국내 기업과 개인 고객들의 해외 수요 충족
  - 국내 기업들의 해외 투자를 위한 다양한 수요 충족→대출, 회사채 발행, 해외 IPO등
  - 개인 고객들의 직접, 간접적인 해외 투자 수요 충족
- 선진국 진출을 통한 선진 금융기법 습득과 해외 투자자 네트워크 구축

국내 금융회사 해외 진출 성격과 추세

-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자산 규모와 변화 추세
  - 은행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→2017년의 자산 규모는 1049억 달러로 전체 은행 자산의 5%
  - 투자은행과 자산관리회사의 자산이 빠른 속도로 증가→2017년 자산 규모 329억 달러로 전체 자산의 9.7%
- 진출 형태는 현지법인, 지점, 사무소로 아시아에 집중
  - 해외 점포 수 : 2018년 말 현재 436개 해외 점포
  - 이 중 아시아에 295개 해외 점포로 전체의 67.7%
  - 중국과 베트남에 각각 63개 해외 점포와 52개 해외 점포

국내 금융회사 해외 진출 성격과 추세

- 은행들의 이익 유지와 투자은행과 자산관리회사도 이익 전환
  - 2017년 은행의 순이익은 전체 순이익의 8.2%
  - 투자은행과 투자관리회사 순이익은 전체 순이익의 1.6%
  - 일본의 Mitsubish UFJ는 2018년 총수입의 51.8% 해외 발생

국내 금융회사 해외 진출 성격과 추세

- 시장 환경에 대한 전략적 대응 등 현지화 추구
  - Development of localized products
  - Establishment of local loan center
- 국내 은행의 현지화 진전으로 소매 금융영업의 비중 확대
  - 2018년 말 해외 점포 중 현지법인(local subsidiary) 207개
  - 지점(branch) 81개, 사무소 137개로 총 436개 해외 점포
- M&A나 핀테크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한 성장전략 추구

해외 진출의 정책 및 경영전략 차원 개선 방안

- 정책 차원의 개선 방안
  - 체계적 지원시스템 구축
  - 금융부문의 해외 진출 담당 기구의 설치 및 운영
  - 금융 공공부문과의 협력 강화 방안 강구
  - 규제와 감독 애로 사항 개선

해외 진출의 정책 및 경영전략 차원 개선 방안

- 경영 전략적 차원의 개선 방안
  - 장기 비전 수립 : 글로벌 자문기구의 설치와 운영
  - 국가별 거점 영업망 확보와 단계적 확장
  - 해외 비즈니스 모델의 정립
  - 인력의 전문성 제고
  - 지속적 현지화 정책 추구
  - 민간 금융부문과의 협력 강화 : 현지 핀테크 전략 구축 등

디지털 금융

디지털 기반 기술과 금융혁신 간의 융합적 결합

- AI(인공지능) : 정보를 효율적으로 분석, 학습, 예측
- Big Data : 수많은 정보의 저장과 의미 있는 정보의 추출
- Blockchain : Distributed Ledge(분산원장기술)의 원천 기술
- Clouding Computing : 언제 어디서나 정보의 전송과 조회 및 처리
- Cryptography : Smart Contract와 Biometrics의 원천 기술
- Mobile Access Internet : 디지털 지갑과 Open APIs
  - 오픈 뱅킹은 외부 개발자가 쉽게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은행이 Open API(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)를 제공하고 그들과 협력하여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

핀테크의 역할

- 핀테크는 금융과 IT의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혁신
- 핀테크는 기술 기반 금융서비스로 기존 금융회사의 업무 지원
- 비금융기업이 신기술을 활용하여 기존의 금융서비스 대체 역할

금융서비스의 분류

- 국내의 금융서비스 분류 : 지급 결제, 송금, 예금과 대출, 투자자금 모집, 자산관리, 보험으로 분류
- 영국의 분류 : 송금과 결제, 금융 데이터 분석, 금융 소프트웨어, 금융 플랫폼 등 네 개 영역으로 분류
- IMF 금융 서비스 분류 : 지급 결제, 예금, 대출, 리스크 관리, 자문

디지털 기술 혁신과 금융산업

- 디지털 혁신에 따른 금융산업의 탈집중화와 탈중개화 진행
  -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모바일 기기 확산과 금융서비스 진입 장벽 축소
  - 기존 금융회사는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종합적으로 공급
  - 핀테크 기업의 진입에 따른 기존 금융서비스 방식의 붕괴 및 변화
  - 핀테크 기업은 경쟁력 있는 개별 금융서비스에 집중하는 탈집중화 정책
  - 기업 간 경계가 사라지는 'No line' 경쟁이자 '플랫폼'경쟁
  - 금융서비스 수요자와 공급자 간 직접 거래 확대로 인한 탈중개화
  - 결제 기능의 탈중개화 : 구글, 페이팔(Paypal), 알리페이 등
  - 국가별 금융환경의 차이에 따른 디지털 혁신의 차이점 상존→금융의 디지털 혁신은 선진국보다 신흥 시장에서 더 빠른 속도로 확산

디지털 기술 혁신과 금융산업

- 은행과 핀테크 기업 간의 상생 협력 방안 마련 필요
  - 금융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받기를 원하며 제공할 필요
  - 국내 핀테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필요
  - 기존 금융 플랫폼과 핀테크 기업의 기술을 결합한 신규 서비스 개발 필요
  - 핀테크 발전을 위한 규제 및 제도 혁신 필요→예) 인증, 본인확인 등 규제와 관행의 재검토
  - 오픈 뱅킹(open banking) 구축 필요→핀테크 기업이 은행결제망을 이용하도록 공동결제시스템 구축
  - M&A를 활용한 디지털 융합 추진→예) 세계 금융-ICT 사업간 M&A 건수가 2010년 256건에서 2016년 471건으로 증가

디지털 기술 혁신과 금융산업

- 개인 정보 보호와 빅데이터 활용 간 균형 확보 필요
  - 금융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주체가 금융시장 주도
  - 새로운 상품 개발과 서비스 업그레이드에 필수적인 빅데이터 구축과 활용
  - 디지털 거래와 디지털 금융 일반화로 거래의 안전성과 개인 정보 보호의 중요성 확대
  - 개인 정보 보호와 빅데이터 활용 간의 효과적 균형 확보 필요

디지털 리스크 관리 필요성과 과제

- 금융의 디지털화는 디지털 리스크 확대
  - 디지털화에 따른 비대면 채널 활용 증가→금융회사의 KYC(Know Your Customer), AML(자금세탁방지) 관련 위험 증가
  - IT 기업과의 기술적 협력과 오픈 API 제공 등→금융회사의 정보 관리, 고객 보호, 금융사기 방지 관련 어려움 배가
  -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기술적 고도화와 복잡성 증가→의도적 비의도적 불완전 부당 판매 증가 가능성
  - 새로운 금융상품의 출시→가상화폐 출시 등에 따른 위험 증가

디지털 리스크 관리 필요성과 과제

- 디지털 리스크에 대한 적절한 통제 필요
  - 디지털화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금융사고와 소비자 피해 우려→예) 사이버(cyber) 공격 등
  - 내부 통제가 불완전할 경우 대형 금융사고와 소비자 피해 우려
  -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나 소송, 배상 야기 우려
  - 금융회사에 대한 신뢰 및 고객기반 상실과 규제강화 초래 위험

디지털 리스크 관리 필요성과 과제

- 디지털 리스크를 관리할 지배구조체제 구축 필요
  -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
  - 준법 감시 체계 구축
- 디지털화 리스크를 차단할 시스템 구축 필요 : 분산원장 활용 등
- 금융과 비금융 상호 간 융합에 따른 리스크 관리 필요
  - 국내 금융지주 그룹은 기술적 부문의 통제 부족
  - IT 기업 등의 경우 통합적 위험관리 체계 구축 미비
  - 기술적 부문 해결과 통합적 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

금융혁신과 금융안정

잘못된 금융혁신과 미국의 금융위기

- 서브프라임 부동산담보 대출 확대와 다단계 증권화
- 다단계 증권화와 그림자 금융의 확대
- 다단계 증권화와 그림자 금융에 대한 위험관리 실패
  -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 부실화
  - 헤지 펀드와 투자은행의 파산
  - 신용평가회사, 신용부도스왑(CDS), 채권보증회사를 통한 신용보강이 시스템 리스크 발생 상황에서 오히려 위험 확대 초래
- 금융위기의 확산과 글로벌화
  - 금융산업 전반으로 위기 확산
  - 유럽과 신흥개발국으로 위기 확산

글로벌 금융위기가 주는 교훈

-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거품의 붕괴 과정에서 발생
- 물가와 실물부문의 안정이 금융안정을 보장하지 않음
- 금융위기를 회복하는 데 장기간 큰 비용이 든다는 점
- 거시건전성 감독의 중요성과 글로벌 금융협력의 필요성
- 금융시스템 위험을 막기 위한 정부와 중앙은행의 사전적 능동적 대처

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과 금융불안 우려

- 미-중 간 무역 마찰 : 무역 전쟁, 화폐 전쟁, 패권 전쟁의 전주곡
- 미국 경제 : 주식 시장의 급락 가능성과 경기 침체에 대한 경고음
- 중국 경제 : 잠재 위험요인 현실화와 성장 둔화 우려
- 신흥국 : 국제 금리 인상과 일부 국가 부도 위기 위험

한국의 대표적 금융시스템 위험

-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거품 붕괴 과정에서 나타나는 위험
- 급격한 자본의 유출입에 따른 위험
- 금융권 간 연계성 확대와 비은행권 비중 증가에 따른 위험

금융안정을 위한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의 조합

- 실물 사이클 변동에 통화정책, 금융 사이클 변동에 거시건전성 정책
- 금융 사이클 변동성 확대가 금융시스템 위험 촉발과 실물경제에 큰 영향
- 통화정책이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촉발하는 문제
- 거시건전성 정책이 경기 활성화 정책으로 활용되는 문제
- 통화정책은 한국은행 거시건전성 정책은 금융당국에서 관리
- 금융안정을 위한 통화신용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의 최적 조합 필요

정부와 한국은행 간의 거시건전성 정책 협력 방안

- 거시건전성 정책 협력 방안 수립 시 고려 사항
  - 금융안정을 위한 통화신용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 간의 최적 조합
  -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의 독립성 유지
  - 위기 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력 체계 확보 방안
- 금융안정위원회를 상설 기구로 신설
  - 기획재정부, 한국은행, 금융위원회 등 참여
  - 수평적이고 실제적인 협력체제 마련
  - 거시건전성 정책을 책임지고 금융안정과 관련된 중요 사항 결정
  - 위원회의 법제화와 사무국 신설
-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들 선정과 규제 감독
  - 금융위기 발생 시 한국은행도 일차적 책임
  - 한국은행에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들에 대한 공동감독권 부여
  - 한국은행의 독립성 확보는 정책적 책임 수반